

#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권윤희<sup>\*</sup>, 곽오계<sup>2</sup>

<sup>1</sup>대구과학대학 간호과, <sup>2</sup>경운대학교 간호학과

## Effect of Ready Planned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Yunhee Kwon<sup>1</sup> and Oh-Gye Kwa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학습 프로그램과 연구 참여에 동의한 T대학 간호과 2학년을 대상으로 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으로 단순무선 배치를 하였으며, 실험군에게는 15주 30시간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연구도구는 MBTI 검사, 대인관계, 진로정체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 t-test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30 experimental group and 30 control group, nursing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2nd grade nursing students were selected from nursing program of T university in Daegu, Korea. The 30 experimental group students received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gh MBTI for 30 hours(2 times in a week for 15 weeks). Measures were MBTI tes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7.0 program, chi-square test, t-test.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received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gh MBTI will have a higher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change score than the control group.

**Key Words** : MBTI, Interpersonal relationship, Career identit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발달단계 상 정체위기와 역할혼미를 경험하

면서도 직업사회 준비과정에서 대인관계와 진로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어 진로역할을 포함한 미래의 역할정체를 위한 개입에 있어 중요한 시기고 할 수 있다[1]. 이 시기에 형성된 대인관계가 이후 사

이 본 연구는 2010년 대구과학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 권윤희(sengbira@hanmail.net)

접수일 10년 09월 28일 수정일 (1차 10년 10월 21일, 2차 10년 10월 25일, 3차 10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 10년 11월 19일

람들과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인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며, 성공적인 직업세계에로의 이행을 위한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하다[2].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는 어느 한 학생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즉 각자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한 개인적 특질로서 개인의 대인관계나 적응, 문제에 대한 대처기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다양한 조직과 사회 속에서의 대인관계가 만족스럽고 효과적일 때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하며, 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대인관계가 불만스럽고 비효과적인 경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은 방해받게 되며, 스스로 좌절하고 고민을 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우울증, 자폐증, 약물의존 등과 같은 정신적 문제 등의 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간호대학생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대인관계 문제와 함께 생소하고 임상실습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중 대인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였다[4]. 특히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이 국가면허 취득 후 재직하게 되는 임상실무 현장에서 이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상호협력과 상호작용의 문제에서 오는 좌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효율적인 대인관계는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며 간호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임상실습 상황에서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졸업 후 병원조직에서 다양한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은 진로 결정자와 진로 미결정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적절한 진로상담이 필요하다[6]. 간호대학생은 간호사 국가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로 진로 결정자로 볼 수 있어 간호 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 정립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확신정도를 말하며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및 재능 등에 관한 상(Picture)을 소유한 상태를 의미한다[7]. 진로정체감이 확고한 경우는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 준비행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8] 간호대학생이 적절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고하고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을 정립하게 된다면 간호직에 대해 안정된 진로 준비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로 준비 행동으로는 올바른 취업준비, 직장선택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자기개발, 확고한 직업의식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서의 의식과 자질 개발 등이 포

함 되며[9], 이러한 진로준비 행동을 도울 수 있는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직업세계 진출전에 긍정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진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 향상은 국가고시 준비와 이수해야할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이 많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이론 중심 주입식 교수학습을 통해서는 대인관계나 진로정체감 향상과 같은 심리적 성장에는 무리가 따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Jung의 심리유형론에 근거하여 Myers와 Briggs가 개발한 MBTI(Myers & Briggs Type Indication) 성격유형 검사 도구는 자기이해와 타인이해 및 수용에 효과적이며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의 선호유형을 찾는 검사 도구이다[10]. MBTI 활용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성격유형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역동을 통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MBTI 활용으로 성격과 잠재력을 발견, 개발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으며[11], 건강한 자아정체감은 진로정체감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12]. 따라서 인간의 심리와 관계가 있는 MBTI 성격유형을 활용하여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MBTI를 활용하여 대인관계,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13][14]가 있었다. 권윤희(2002)의 연구는 12명을 대상으로 3일간 단기간 동안 적용한 것으로 대상자 인원이 확대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MBTI활용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의 학기과정인 15주 동안 운영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증진과 진로정체감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유사 실험연구이다[표 1].

[표 1] 연구설계

집단	사전 검사	중재 (15주)	사후검사
실험군	Ye <sub>1</sub>	X	Ye <sub>2</sub>
대조군	Yc <sub>1</sub>		Yc <sub>2</sub>

X :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

Y : 대인관계, 진로정체감

##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어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T대학 간호과 학생 전 학년 중 예비뽑기 방법으로 단순무선 배치된 2학년에게 프로그램 안내, 연구의 목적, 익명성의 보장,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수락한 60명을 선정하였다. 두 집단 간의 차이 비교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Cohen의 공식[15]에 의해 유의수준  $\alpha = 0.05$ 에서 검정력  $1-\beta = 0.80$ , 효과 크기  $f = 0.4$ 일 때, 실험군 25명, 대조군 25명이 최소 요구되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60명을 예비뽑기 방법으로 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으로 배치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MBTI

김정택과 심혜숙[16]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개발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진 표준화된 검사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Form G 검사지는 총 9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한국심리검사연구소의 MBTI 검사지 참조).

### 2.3.2 대인관계 척도

Schlein과 Guerny가 1971년에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이형득과 문선모[17]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총 25 문항, 1-5점 척도이다. 대인관계의 수준은 총 합산 점수를 전체 문항 수로 나눈 평균평점으로 나타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형득과 문선모[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2.3.3 진로정체감 척도

Holland, Daiger 와 Power[18]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을 김봉환[2]이 한국어로 번안한 18문항을 권윤희[13]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1-4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의 수준은 총 합산 점수를 전체 문항 수로 나눈 평균평점으로 나타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말한다. 신뢰도는 권윤희[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가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2.3.4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은 D시 T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 형태 중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서 선정되어 2009년 6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개발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수-소집단활동-평가-보상단계인 STAD(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s)학습 모형 [19]을 기초로 (1) 교수 활동, (2) 소집단 협력 활동, (3) 자기주도 평가, (4) 자기주도 보상 등의 교수학습 단계로 구성되었다.

#### 2.3.4.1 교수활동-수업 프로그램 안내, 강의 및 피드백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은 성격유형에 따라 한 모듈 당 6-8명으로 구성하고, 각 수업 회기에 필요한 수업 지도안, 기자재 및 재료준비, MBTI 검사지와 프로파일 준비, 대인관계 수준 분석, 진로정체감 수준 분석을 한 후 MBTI 검사와 성격유형, 성격유형과 자기이해, 업무처리, 직무탐색, 수업 내용,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중요성과 진로정체감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고 회기별 소집단 협력 활동, 활동 결과 발표, 자기주도 평가와 보상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 2.3.4.2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

대상자의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은 MBTI 성장프로그램 지도자 안내서[1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13]을 수정, 보완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해 자기이해 및 자기수용, 타인이해 및 타인수용, 관계이해 및 향상, 자기탐색과 자기발견, 직업 및 직무탐색 5단계로 구성하였다.

자기이해 및 자기수용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은 개인의 성격유형을 통한 자기이해와 수용하는 활동이다.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으로 꽃과 동물, 형용사, 동사로 자기소개, 자신의 밝고 긍정적인 점과 어둡고 부정적인 점을 대비시켜 그리기, 자기 별칭 짓기, 발표활동을 한다. 또한 4가지 선호지표 설명과 기질별 작업을 실시한다. E/I에서는 E가 I에게 하고 싶은 말, 반대로 I가 E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술하도록 하고, S/N에서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

다면? 이라는 주제를 주고, T/F에서는 가치관을 나누기 위해 난파선 게임의 주제를 주어 토론하게 한다. J/P에서는 여행계획을 세우게 하고 계획을 세우는 방식(시간계획표 작성, 예산 짜기, 여행목적지 등)을 발표하는 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서로 다른 성향과 장단점 체험을 통한 자기이해를 한다.

타인이해 및 수용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은 타인의 성격이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계이다. 먼저 반대유형별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E/I에서는 피드백을 나누고 대안까지 마련해 주고, S/N에서는 2인 1조가 되어 그림벽화를 그리고 그림으로 토론하도록 하며, T/F에서는 역할연기를, J/P에서는 클럽으로 주택조감도를 만들게 함으로 서로가 반대되는 성격에게 도움을 주면서 타인을 이해하도록 한다. E/I, S/N, T/F, J/P 기질별 작업을 통하여 각각 가장 선호하는 환자와 선호하지 않는 환자를 적고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수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관계이해 및 향상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은 전체가 함께 작업함으로 관계의 이해와 향상을 시키는 단계이다. 리더를 정한 후 조원전체가 참여하여 공동병원 만들기 계획서를 짜고 발표하게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모든 조원이 공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공동화 그리기를 함으로써 자기이해 및 자기수용 타인이해 및 타인수용을 바탕으로 관계향상을 시키고자 한다.

자기탐색과 자기발견 소집단 협력 학습 활동은 지도력, 간호업무, 융통성과 관련된 자기 탐색과 자기 발견을 위한 단계이다. 먼저 기질별로 자신의 자랑거리 20가지를 적고 발표하며, 자랑거리와 관련하여 직업인 즉 여기서는 간호사가 되면 필요한 지도력, 간호업무, 융통성과 관련하여 잘 할 수 있는 20가지를 적고 발표하게 한다. S/N, T/F, J/P 유형에 대한 장점과 서로 다른 점을 기술하게 하고, 개인의 기능별 간호업무처리 스타일, 흥미, 선호분야를 알 수 있게 한다.

기질별로 졸업 후 결정된 직업에 대한 가치명료화, 직무흥미 분야, 업무처리 방식을 파악과 함께 자신이 종사할 일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정보 20가지와 알고 싶은 20가지를 적고 발표하는 작업을 통하여 자신이 종사할 일의 세계와 관련된 진로, 직업 및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게 한다.

### 2.3.4.3 자기주도 평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방법이나 전략의 효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평가를 위해 소집단 활동 후 별지를 주어 성격유형의 주기능, 부기능, 열등기능을 적용해서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

가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2.3.4.4 자기주도 보상

본 학습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느낀 점, 결심나누기, 성장프로그램 수료증 발부 및 격려 선물을 통해 소집단 활동, 프로그램 내용 및 학습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 2.4 연구 진행 절차

### 2.4.1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연구자 준비

연구자는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MBTI 전문 일반강사로서 검사지 활용에 대한 한국 MBTI 연구소에서 부여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 2.4.2 참여자 선정과 집단구성 및 사전검사

2009년 6월 5일 D시에 소개하고 있는 T대학 간호과 학생 전 학년 중 제비뽑기 방법의 단순무선 배치된 2학년 을 대상으로 학습 프로그램 안내, 목적, 연구 윤리에 대해 설명한 후 참여를 수락한 60명을 선정하여 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으로 단순무선 배치하였다.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 척도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계획된 프로그램 참여 시기를 알려주었다.

### 2.4.3 프로그램 실시

2009년 8월 26부터 12월 5일까지 15회 총 30시간이었고 매주 1회 120분씩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이 시기에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주별 학습 프로그램의 주제, 내용은[표 2]와 같다.

### 2.4.4 사후검사

2009년 12월 10일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진로정체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chi^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은 사전-사후 점수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다.

[표 2] MBTI활용 소집단 협력학습 프로그램

단계	주	주제	내용
MBTI 성격유형 파악	1	MBTI 활용 프로그램 이해	* 수업오리엔테이션 *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한 MBTI 활용 강의
	2	나의 성격유형은?	* MBTI 성격유형 검사

자기 이해 및 수용	3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	* 자기소개 : 꽃과 동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 또는 동사 사용하여 발표 * 선호지표에 대한 특성 강의
	4	친밀과 개방	* 4가지 선호지표별 작업: E-I, S-N 집단 활동
	5	친밀과 개방	* 4가지 선호지표별 작업: T-F, J-P 집단 활동
타인 이해 및 타인 수용	6	나의 빛깔 찾기	* 16가지 유형별 작업 *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발표
	7	너의 향기 찾기?	* 반대 유형 별 작업 E/I-피드백과 대안 전달, 발표 S/N-2인 1조 그림으로 이야기, 발표
	8	너의 향기 찾기?	T/F-2인 1조 역할놀이, 발표 J/P-주제 조각도 만들고 발표
관계 이해 및 향상	9	옷 바꿔 입기	* 기질 별 작업 E/I-반대 유형, 장점 발표 S/N-반대 유형, 장점 발표
	10	옷 바꿔 입기	* 기질 별 작업 T/F-반대 유형, 장점 발표 J/P-반대 유형, 장점 발표
	11	공동병원 계획서	*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 함께 계획, 발표
자기 탐색과 자기 발견	12	공동 그림 작품 완성하기	*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 함께 그리기, 발표
	13	자기 자랑거리!	* 진로정체감 강의 * 자랑거리 기술, 발표 * 일처리에 있어서의 장점, 부족한 점 기술 * J/P, S/N 유형 장 단점 기술 * J/P, S/N 반대유형이 일처리에 있어서 다른점 기술
	14	일의 세계 탐색	* 기질별과 기능별 직업에 대한 가치명료화, 업무 흥미분야 탐색, 기술, 발표 * 기질, 기능별 유형의 업무방식, 개발점 탐색, 기술, 발표 * 자신이 중사할 직업 및 직무 탐색과 정보수집
종결	15	다짐하기	* 활동, 느낀점, 결심 나누기 * 평가, 보상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 성별, 나이, 종교, 대학만족도, 학업성적,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서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대상자의 대학만족도는 보통으로 만족 65.0%, 성적은 보통이 65.0%, 간호학 전공 만족은 ‘그저그렇다’가 76.6%로 가장 많았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특성	분류	실험군 (n=30) n(%), M(SD)	대조군 (n=30) n(%), M(SD)	전체 (n=60) n(%), M(SD)	X <sup>2</sup> or t	P
성별	남	1( 3.3)	0	1( 1.7)	1.00*	.500
	여	29(96.7)	30(100.0)	59(98.3)		
연령		21.1(1.5)	21.3(2.2)	2.15(1.7)	0.27	.787
	종교					
종교	기독교	5(16.7)	2( 6.7)	7(11.7)	2.06	.559
	천주교	2( 6.7)	4(13.3)	6(10.0)		
	불교	4(13.3)	5(16.7)	9(15.0)		
	무교	19(63.3)	19(63.3)	38(63.3)		
대학만족	매우만족	10(33.3)	10(33.3)	20(33.3)	1.02	.599
	보통만족	19(63.3)	20(66.7)	39(65.0)		
	불만족	1( 3.3)	0	1( 1.7)		
성적	상	1( 3.3)	0	1( 1.7)	1.43	.489
	중	18(60.0)	21(70.0)	39(65.0)		
	하	11(36.7)	9(30.0)	20(33.3)		
전공만족	매우만족	7(23.3)	6(20.0)	13(21.7)	0.09	.754
	보통만족	23(76.7)	23(76.7)	46(76.6)		
	불만족		1( 3.3)	1( 1.7)		

\* Fisher's exact test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t=-.615 p=.541)와 진로정체감(t=-.864, p=.39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대인관계는 5점 만점에 사전 평균평점은 실험군 3.49(±.42)점, 대조군 3.54(±.34)점 이었다.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사전 평균평점이 실험군 2.07(±.29)점, 대조군 2.13(±.25)점 이었다.

[표 4] 종속변수의 동질성

변수	실험군(n=30) M SD	대조군(n=30) M SD	t	P
대인관계	3.49(±.42)	3.54(±.34)	-.615	.541
진로정체감	2.07(±.29)	2.13(±.25)	-.864	.391

#### 3.2. 가설 검증

##### 3.2.1 제 1가설 검증

“MBTI 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제 1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MBTI 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인관계 점수

변화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t=11.555, p<.001$ )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실험군의 대인관계 점수는 3.49점에서 3.97점으로, 대조군은 3.54점에서 3.55점으로 평균점수가 변화하였다[표 5].

[표 5]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인관계 변화

집단	사전	사후	사후-사전	t	p
	Mean(SD)	Mean(SD)	Mean(SD)		
실험군 (n=30)	3.49(±.42)	3.97(.43)	0.48(.22)	11.55	p<.001
대조군 (n=30)	3.54(±.34)	3.55(.33)	0.00(.05)		

### 3.2.2 제 2가설

“MBTI 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진로정체감 점수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제 2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MBTI 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진로정체감변화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t=10.790, p<.001$ )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실험군의 진로정체감은 2.07점에서 2.67점으로, 대조군은 2.13점에서 2.13점으로 평균점수가 변화하였다[표 6].

[표 6] 실험군과 대조군의 진로정체감 변화

집단	사전	사후	사후-사전	t	p
	Mean(SD)	Mean(SD)	Mean(SD)		
실험군 (n=30)	2.07(±.29)	2.67(.23)	0.60(.30)	10.79	p<.001
대조군 (n=30)	2.13(±.25)	2.13(.24)	0.00(.06)		

## 4. 논의

본 연구는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실험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대인관계의 긍정적 점수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2명을 대상으로 3일간의 성장프로그램을 적용한 권윤희[13]의 연구와 3주 동안 3시간의 MBTI 기본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집단 응집력의 효과를 연구한 황승숙[20]의 보고와 같았다. 또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향상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이수련[21]의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긍정적 자기표현과 동시에 타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MBTI 이론[22]에 근거하여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험군의 대인관계 점수가 대조군보다 긍정적으로 더 높게 변화된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로 인해 자신의 성격유형 선호경향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한 대인관계 역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수준은 5점 만점에 실험군 평균 3.49점, 대조군 평균 3.54점으로 권윤희[13]의 연구(실험군 평균 3.49점, 대조군 평균 3.45점)와 유사하였으며,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수련[21]의 연구에서 연구결과(실험군 평균 3.25, 대조군 평균 3.34)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대인관계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간호학의 기본 철학을 학습함과 동시에 임상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한 대인관계 경험의 축적으로 일반대학생보다 대인관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본 연구의 실험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진로정체감 점수 변화가 긍정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권윤희[1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었다. 동일한 대상의 진로정체감 변화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드물어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MBTI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업계 고등학생에 적용한 서영욱[23]의 연구결과와 MBTI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에게 적용하여 진로성숙도가 증진한 이근춘[2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어 MBTI활용 프로그램은 진로성숙과 긍정적 진로정체감 증진을 효과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 활동으로 진로와 관련된 자기 탐색 및 일의 세계 탐색을 통해 직업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이 형성되는 진로정체감[25]이 발달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이해와 탐색 및 발견, 자신이 종사할 일의 세계에 대한 탐색 등의 진로정체감 요인[2]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해 개인의 선호도와 직업의 성격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호유형과 직업 간의 부조화를 가능한 한 줄임으로써 만족스러운 직업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의 선호유형이 자신이 종사할 직업과 맞지 않을 때는 자신의 부족한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종사할 직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

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형과 다른 직업 환경이 예견될지라도 열등기능을 긍정적 기능으로 개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을 주에 2시간씩 15주 동안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MBTI활용 프로그램은 상담자나 프로그램 운영자의 경험과 능력,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소 시간의 기준은 4시간이다. 단시간의 적용은 장시간의 성장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주로 시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실시하지만 집단의 역동과 지속적이고 점진적 성장을 위해 장시간의 프로그램 실시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성장은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방법으로는 증진시키기에는 제한이 있어 집단의 효과적 역동의 가능성이 높은 소집단 협력 활동이 포함된 Slavin[19]의 교수 활동, 소집단 협력 활동, 평가, 보상으로 모형을 기초로 MBTI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대학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교과과정 기간인 한 학기 15주에 걸쳐 운영을 시도하였다. 추후 반복 및 확대 연구를 통한 효과를 검증하여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다면 학점인정 등의 평가방법이 추가되어 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생의 인성개발의 기초학력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 향상을 돕는 단시간의 적용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기 중 15주간의 교과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수역량강화사업의 일 형태로 학점 불인정 15주 수업과정으로 진행되었지만 대상자의 윤리적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인하여 자신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오손 효과의 제한점이 따른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진로정체감 증진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후 검사와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3년제 간호대학생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효과의 신뢰성을 확인해볼 것을 제언한다.

## 참고문헌

- [1]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1963.
- [2] 김봉환,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 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월, 1997.
- [3] 이경순, 이미경, 김경희,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현문사, 2006.
- [4] 김혜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 능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 16권, 제1호, pp. 64-76, 3월, 2002.
- [5] 김혜정,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의사에 관한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월, 2002.
- [6] M. J. Heppner, & F. Hendricks, "A process and outcome study examining career in decision and indecisiveness", J Counsel Develop, Vol 73, pp. 426-437, 1995.
- [7] J. L. Holland, & J. E. Holland, "Vocational indecision ;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4, pp. 404-414, 1977.
- [8] 김봉환, "기존의 진로지도관련 프로그램들", 한국청소년상담원, 1999.
- [9] 추수경, 전은미, "간호학생의 진로 및 취업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4권, 제2호, pp. 280-295. 12월, 1998.
- [10] 김정택, 심혜숙, "MBTI 성장프로그램 지도자 안내서( I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8.
- [11] C. C. Martin, "Looking at types and careers", CAPT, Florida, 1995.
- [12] M. L. Savickas, "Annual review ;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The

-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38, pp. 100-134, 1989.
- [13] 권윤희,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월, 2002.
- [14] 이재영, “공업계 고등학생의 사이버 집단상담 효과에 대한 연구: MBTI를 활용한 자아개념 확립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월, 2001.
- [15]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이인숙, 김종임, 배정미, 이선미, “간호연구와 통계분석”, 수문사, 2009.
- [16] 김정택, 심혜숙,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 표준화에 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MBTI 연구소, 1990.
- [17] 이형득, 문선모,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학교논문집, 제19호, pp. 195-204, 1979.
- [18] J. L. Holland, D. C. Daiger, & P. G. Power,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y Press, 1980.
- [19] R. E. Slavin, "How student learning teams can integrate the desegregated classroom", Integ edu, Vol 15, pp. 56-58, 1977.
- [20] 황승숙, “MBTI 기본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8권, 제1호, pp. 61-73, 3월, 2004.
- [21] 이수련,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월, 1999.
- [22] 김정택, 심혜숙, 임승환, “나의모습 나의얼굴”,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3.
- [23] 서영옥, “MBTI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실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월, 2007.
- [24] 이근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지도프로그램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월, 2004.
- [25] J. L. Holland, D. C. Gottfredson, &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No 6, pp. 1191-1200, 1980.

---

**권 윤희(Yunhee Kwon)**

[정회원]



- 1999년 2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교육학석사)
- 2002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대구과학기술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간호학, 사회과학, 교육학

---

**곽 오 계(Oh-Gye Kwag)**

[정회원]



- 1988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1999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간호학, 보건학